

광주시립미술관 제 5,6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나도 잘 지냅니다'전시 전경.



이재형작 'Face of City_Gwangju'

'코로나 블루 극복'희망 메시지 선사

시립미술관 민주인권평화전 '나도 잘 지냅니다' 작가 8명, 불평등·불안정 속 위로와 치유 전해

우리사회의 불안정함, 코로나19 이후 소외감 을 예술을 통해 치유하고 위로하는 전시가 마련 됐다. 작품들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정을 재현해 내지만 한 발 한 발 작품에서 발길을 뗄 때마다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전시다.

광주시립미술관과 5·18기념재단은 2021 민 주인권평화전 '나도 잘 지냅니다'를 오는 12월 5일까지 미술관 본관 제 5,6전시실에서 개최한 다. 김효숙, 류성실, 유지원, 윤소연, 이재형, 최 선, 최성임, 허산 등 8명의 작가가 참여해 영상, 설치, 회화 등 5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장에서 맨 처음 만나는 허산 작가의 부서 진 기둥과 균열이 있는 벽 작품은 불안하다. 말 끔한 전시공간에서는 볼 수 없는 벽의 균열과 뒤틀어진 기둥은 완전한 건축물 속 부조화로 우 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함, 평등 속 불평 등의 모순을 드러낸다.

김효숙 작가의 캔버스에는 부서진 건축 현장 의 수많은 파편들이 움직인다. 파이프, 철망, 콘 크리트 잔해 등 파편화되고 부유하는 구조물은 사회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불안정한 현 대인을 상징한다.

류성실 작가는 유튜브 방송 영상을 통해 허무 맹랑한 이야기들을 사실처럼 들려준다. B급 블 랙 코미디 형식을 취하고 있는 'BJ 체리장' 영 상은 가짜 뉴스나 떠도는 여론에 흔들리는 소시 민들의 모습과 인터넷의 이중적 성격을 통찰력 있게 비판하고 있다.

이재형 작가의 'Face of City_Gwangju'는 광주지역의 감성을 얼굴의 표정으로 표현하는 워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데, 긍정적인 문다. 구엔 웃는 모습, 부정적인 문구엔 찡그린 모습 등 반응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는 방식이 신박하

줍는 노동시간을 제도권 안의 계산법인 최저시 급으로 계산했을 시 보이는 표면적인 노동의 양 과 무게를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노동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불평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윤소연 작가는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된 일상 의 모습에 관심을 갖는다. 마시다 둔 커피 잔, 택배 박스, 낡은 소파와 의자, 화분 종이 쇼핑백 등 한 공간에 있었지만 지나쳤던 사물들을 다룸 으로써 사실적인 일상 묘사와 함께 집콕 생활을 위트 있게 표현했다.

최선 작가의 '코로나 위장-움직이는 매개자 (도큐멘트)' 작품은 코로나 바이러스 촉수를 변형해서 만든 이미지를 차에 장착하고 직접 관

작업이다. 광주 사람들의 실시간 SNS 주요 키 람객을 찾아 전국을 다니는 과정을 찍은 영상이

최성임작가는빵등을묶는끈(wire ties)으 로 만든 '황금이불', 양파망으로 만든 '겨울 꽃'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로 작품을 유지원 작가의 '노동의 가치'는 노인의 폐지 제작했다. 놋쇠와 비즈, 스테인레스 스틸로 바 닥에 닿아 서있는 작품 '발끝'은 발끝으로 서는 행위가 위태롭지만 힘든 상황을 버티고 이겨내 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 이번 전시 제목인 '나도 잘 지냅니다'는 로마 인들이 편지를 쓸 때 첫 인사말로 자주 사용하 는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나도 잘 지냅니다'라는 문장에서 차용했다. 나의 안부 이전에 타인에 대한 안부와 염려가 선행되어 있

> 시립미술관 전승보 관장은 "코로나 재난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광주시민들에게 이번 전시를 통해 지친 일상을 치유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 > /이연수 기자



청년작가들 작품 '한 자리'

광주문예회관 '다른 표현, 같은 열정' 전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광주화단을 이끌어갈 주역인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다른 표현, 같 은 열정' 전을 오는 10월 4일까지 개최한다.

'다른 표현, 같은 열정'은 작가들 저마다 사용하는 재료나 표현기법, 형식은 다르지만, 예술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 는 마음과 예술가로서의 신념과 투지, 근본적인 열정은 같음

1987년에 결성된 청년미술작가회(회장 명현철)는 광주・ 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20~40대 청년작가들로 구성된 미

서양화, 한국화, 판화, 조각,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 들이 친목과 교류, 창작활동을 통해 작가로서 발전하고 대중 들과 소통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두 고 활동하고 있다.

올해로 39번째 정기전인 이번 전시에는 회원 22명이 함께한

참여 작가는 고미아, 권예솔, 김다인, 김대욱, 김동아, 김영 일, 명현철, 박정일, 박지훈, 박한빛, 양병규, 양수경, 윤성필, 윤준성, 이정은, 이태희, 전정연, 조선아, 조주희, 최소애, 최 태홍, 홍지희 등이다. /이연수 기자

커버스토리

전남관광 디카시 '웃음꽃 전남'



섬진강

김종희

내 마음에 흐르는 섬진강 강변에는 노을이 질 때 까지 황소가 운다 밀밭에 들어 선 송아지를 부르듯 길 비낀 그 사람 그리워 오늘도 강안江岸에 서서 추억을 부른다 알 깐 자리 위태로워 노고지리 운다.

'광주의 달을 찍어봐'

관광재단. 추석맞이 SNS이벤트 오늘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

광주관광재단은 추 석명절 기간 동안 소규 모 인원으로 안전하고 즐겁게 광주를 여행하 는 관광객을 위해 '광 주의 달을 찍어봐' 온 라인 이벤트를 진행한



이번 이벤트는 코로 나 19 상황에도 광주를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어려운 시기 서로의 행복과 행운을 빌어주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13일부터 26일 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참여방법으로는 광주관광재단 SNS(인스타그램, 페이스 북)를 팔로우 한 뒤, 개인 계정에 광주 관광지에서 촬영한 달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 소원 글과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조건을 충족한 응모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치킨과 커피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좋아요' 수 상위권 중 내부 회의를 통해 포토제닉 상을 선정,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광주관광재단 남성숙 대표이사는 "추석기간 동안 광주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뜻깊은 온라인 행사를 기획했다. 많이 참 여해 광주 하늘의 푸짐한 보름달을 보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달을 찍어봐' 이벤트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 주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연수 기자





■ 구독문의 : 062) 720-1014 ■ 기사제보 : jnreviews@hanmail.net





2021년 9호 | 제70호 | 값 10,000원 | 1년 정기구독료 100,000원